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나?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어느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는 아들집에 오려고 서울역에 내리니 우선 사람이 많은 데에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보리고개를 경험한 세대이면 우선 먹는 문제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택시기사에게 이 많은 서울 사람들은 다 무얼 먹고 사느냐고 묻자 택시기사는 서슴없이 『서로 뜯어 먹고 살지요』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명답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회, 먹느냐 먹히느냐의 관계속에서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심판관의 위치에서 감독하여 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흔히 정부는 중립적이어야 공정한 것으로 착각되어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엄정 중립으로 잘 못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부는 정의 편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가던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옆에서 중립이라고 가만히 있다면, 결과는 강도편을 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축산인들 중에도 듣기 좋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말을 하거나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로만 동반자 관계이고 내용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동물약품업체의 무더기 사료공장직원 외유후 구매약품 변경에 따른 후유증이나, 사료회사의 일방적 품질 가격 결정이나, 양축농가의 축산물 안전성등에 대한 둔감한 신경등이 언젠가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커다란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일들이 계열주체 기업이나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로 잘 협력해 나가고 있다. 사료회사와 양축가의 관계나 양축가와 육가공업체의 관계 등은 생산자, 소비자의 관계 이전에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없이는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오늘 석간에 남서울 대공원에서 야생 여우 번식에 성공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그 많은 어미여우가 새끼를 낳아서 20일 이내에 제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4년간이나 번식에 성공하지 못해왔다. 어미와 자식

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젓을 먹이고 자라가는 관계로 바뀐 것은 우리가 동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 냉장 닭고기가 수입개방된다. 태국 등 닭고기 수출국들이 한국시장을 먹으려고 넘보고 있으나 국내에서 안먹히려는 대책은 부족한 것 같다. 돼지고기도 냉장육은 1년 3개월후인 '94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이 개방된다. 과거에는 육류의 국제무역이 냉동상태로 이루어졌으나 육가공처리 기술의 발전은 냉장육으로 국제무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이 금년도 상반기에 돼지고기 냉장육을 13,000t이나 일본에 수출한 것등이 그 것이다. 이제 1년3개월 후에는 우리 시장에서 먹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혼자 보다는 뭉쳐야 힘이 있기 때문에 협회, 조합 등 이익단체를 만들어 싸우는데, 국제간의 싸움에는 국가라는 이익단체로 뭉쳐 싸우게 된다. 미국이 농산물에 보조를 주지말자는 UR협상안도 따지고 보면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인데 최근 미국농민에 10억불을 추가 지원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도덕성 이전에 이익집단으로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보여준 것이다.

도덕군자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승리한다면 말할 것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는 것 보다는 비도덕적 방법이라도 승리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자랄때 어른들로부터 지는게 이기는 것이란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가능하면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국제경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싸우면 이겨야 한다.

또한 '94년 부터는 싸움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 냉장육이 수입되면 우선 미국에서는 값이 싸고 우리나라에선 비싼 삼겹살이나 장족등이 수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남은 1년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모래주머니를 달고 싸움에 임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영세율 적용을 비롯하여 불필요한 군살을 모두 빼 버려야 한다.

또한 정해진 작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웍이 필요하다. 선수 개개인이 우수한 것 보다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팀웍이 잘 이루어지는 팀이 우승하는 것을 운동경기를 통해 배운다. 과거 삼국시대에는(중국) 삼국지에서 흥미있게 각색했겠지만 장수가 어느 편이 강하냐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팀웍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것을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농림수산부의 작년 농업동향보고서에서도 지난해 양곡자급도가 37.5%로 가장 낮았고 금년에는 35.2%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해마다 남아 걱정이던 쌀도 내년부터는 재고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은 '97년 이전에 쌀도 수입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었고 농림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대책반이 구성 되었다고 한다. 피해 본 후에 대책을 세우기 보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 무허가축사 양성화 처럼 축산인의 숙원인 부가세, 관세, 자조금 등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 **●**